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새가족 등록 : 임병진, 조에스터, 임예우
2. 오늘 낮예배 후에 연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뒤편에 내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세요.
3.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없습니다. 단, 저녁 7시 30분부터 '성탄전야축하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와 기관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탄축하예배는 내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오은찬(오동호, 오지원 집사님) 어린이의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5. 다음 주일 낮예배 기도담당은 신동기 집사님입니다. 오후예배는 전도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6. 담임 목사님은 12월 26일(화)-28일(목)까지 2박 3일간 내년도 목회 준비를 위해 천마산 기도원에 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4일	12월 31일
예배기도(오전)		김운식 집사	권용기 집사	오진석 집사	신동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오효근 집사	이영선 집사	성탄축하예배	송구영신예배
주일식사담당		김경미 집사 이승미 집사 박진 집사	황희용 권사 이영선 집사	김금옥 권사 박선경 집사 이정현 집사	유숙정 권사 최윤정 집사 신경미 권사
토요일청소		주사랑목장(12/9)	에덴목장(12/16)	갈렙목장(12/23)	둘로스목장(12/30)

하늘문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새롭게 임직을 받는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준비되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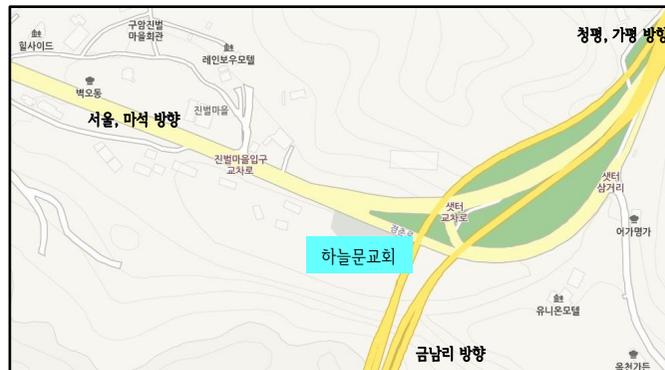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 *성시교독 교독문 119번(성탄절) 다 같 이
- *경배찬송 29장(통 29장) 다 같 이
- *참회기도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양과 기도

- 찬 송 112장(통 112장) 다 같 이
- 대표기도 오진석 집사

봉헌과 말씀

- 성경봉독 마 1-18-25 인 도 자
-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 봉헌기도 인 도 자
- 말씀선포 '외투와같은사람'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 교회소식 다 같 이
- *결단송 620장 다 같 이
-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말씀
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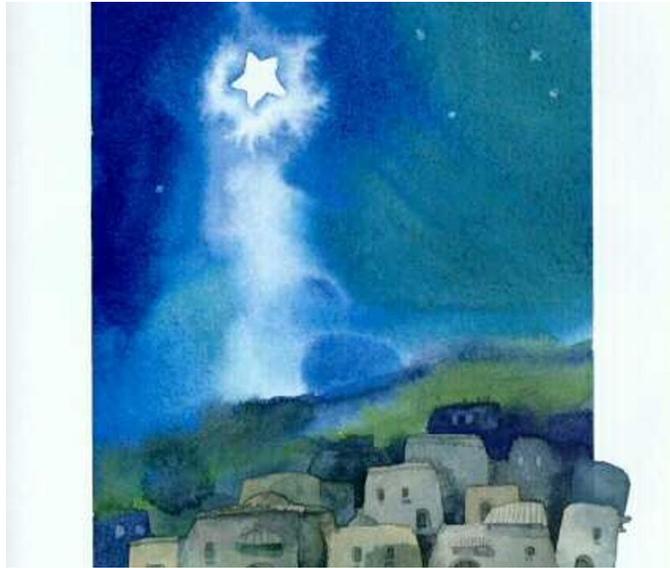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로이다

시편 119편 10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축하전야예배로 인해 오후찬양예배는 쉽니다.

성탄축하전야예배는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6:1-15 '오병이어'(2)
-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4)
-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61:1-8 '주의 날개 아래'(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산다는 건 힘겹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일은 매우 막막하다. 누구나 그렇듯, 삶은 고된 여정이고 수많은 사건들이 한 데 어우러져 중압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버거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차 있고 사는 때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요원해 보인다. 그래서일까, 쌓여만 가는 피로사회 속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삶의 행복을 논하는 것은 오히려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다. 지금까지 세상은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져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부추겨왔다. 그래서 등 떠밀리듯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고단한 삶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힘겹다. 하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삶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물론 말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여유 없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도 바른 생각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공간이 없고, 이기적 마음이 휘두르는 욕망에 방임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타인을 밀쳐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거듭 반추(反芻)해 본다. 반면 참다운 여유란, 세상은 각박하다는 말 한마디의 체념, 혹은 냉소로 살기보다는 세상은 살맛나는 아름다움이 어디서나 있을 수 있음을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 아닐까 싶다. 여기엔 세상이 냉소의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칭찬의 대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마저 없다면 낭패다.

사람에게 여유가 있다는 것은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에서 오는 차이만이 아니다. 다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벵자이처럼 여유만 부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삶은 분명 나쁘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재미처럼 생각 없이 사는 삶도 정작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첫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그날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기에 반갑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할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 C. S. 루이스의 말이 생각난다. "너 자신을 땅속에서 묵묵히 겨울을 견디는 씨앗으로 생각하라. 정원의 주인이신 이가 정한 때에 꽃 피기를, 드디어는 세상에 나가기를, 드디어는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한 씨앗으로 생각하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자. 한 해의 끝자락이다. 아득한 한겨울의 중심에서 있다. 차가운 한기를 느끼는 날, 신실하게 산후에 넉넉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의 여유라도 즐겨보면 어떨까.

Written by 허영진